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2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6월 4일 (음력 5월 2일) 화요일



양산 가득한 도심 거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3일 전북 전주시의 온도가 영상 30도를 웃돌자 전주 남부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양산으로 햇빛을 막으며 거리를 지나고 있다.

광주시, 불법 광고물에 무한반복 전화공격

내달 1일부터 대부업·성매매 알선 전단 번호에 3초 단위 전화

광주시가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무차별적인 전화 공격을 시도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고금리 대부업, 성매매 알선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불법 광고물 킬러'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의 경우 3초 단위로 전화를 걸며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한다.

일반 불법 현수막은 하루 1~2번 전화를 걸어 자체 철거를 유도한다. 광주시는 대포폰 사용이 많은 불법 광고물 전화의 경우 신고부터 사

용금지까지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고전화로 불법 운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경고문으로 불법 광고물 확산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스템을 연계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운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기존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 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광고 수요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폭염' 광주세계수영대회 흥행 변수

광주시·광주경찰, 대회 기간 7월 12일~8월 18일 기온 30도 넘을 듯
안전대책본부 가동...야외 경기장 차양막·그늘쉼터·냉방시설 설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3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가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열릴수록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은 무더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계수영대회와 마스터즈대회가 여름철인 7월 12일부터 28일, 8월 5일부터 18일까지 각각 열릴 때 무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기간 광주와 전남 지역 기온은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비가 오지 않는 폭염이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8일간 지속돼 역대 가장 긴 '폭염연속발생일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회 기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시민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휴가를 계획할 수 있어 자칫 흥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광주시는 우선 더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폭염이 발효되기 전에 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장 주변에 그늘막과 쉼터를 최대한 설치하고 살수차 30여대를 동원해 도로 등에 물을 뿌릴 계획이다.

아외에서 열리는 수구와 하이다 이빙, 오픈워터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객들이 온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람석에 차양막을 설치한다.

또 경기장 주변에는 쿨링 포그(물안개) 등 냉방 시설을 설치할 추진하고 있다.

대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경찰도 투입 인력 운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경찰은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연인원 9만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특히 교통경찰 등은 야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햇빛을 차단하는 우산과 기능성 근무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정부, 美 5·18문건 기밀해제 요청 전망

한미 정상회담 의제 건의 검토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문건의 기밀해제와 제공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전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달 21일 아나인 국무총리에게 5·18 기밀문건 관련 서면질의를 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총리는 미국 정부의 5·18 문건 기밀해제 및 제공 필요성에 대해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 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미국 측 기록물 공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관련 국내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이미 공개했거나 전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며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5·18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도록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5·18 기밀문서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적 대책 기구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향후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의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湖南新聞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